



올해로 13회를 맞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사라예보 겨울축제와 교류를 추진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평화연극제에 참가한 프랑스 발콩 극장의 ‘목이 마르다’ 공연.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보스니아 ‘사라예보 겨울축제’와 교류

2월 현지 방문 MOU 체결 중국 북경과 교류도 진행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광주국제 평화연극제는 ‘민주 인권 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행사중 하나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와 광주시가 함께 주최하는 평화 연극제는 지난해 시비 1억원과 국비 등 모두 1억 7000만원의 확보, 해외 참가 극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올해 역시 시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와 협찬을 포함 약 2억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꾸릴 계획이다.

지난해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3개국 해외 극단이 참여하며 ‘국제’ 행사 면모를 갖춘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올해는 사라예보 겨울축제와 교류를 추진한다. 또 북경과의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순기 회장을 비롯한 광주연극협회 관계자들은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보스니아 헤르체비나 사라예보 시에서 열리는 33회 국제페스티벌 ‘사라예보 겨울축제 2017’에 참가한다. 사라예보 축제는 광주의 평화연극제처럼 ‘평화’를 전면에 내걸고 진행되는 비영리 페스티벌이다.

사라예보는 1914년 6월 발생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사건(사라예보 사

건)이 일어난 곳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장소다.

사라예보 겨울축제는 1984년 첫 행사를 치른 후 지금까지 전세계 70여개국 3만 6000여명의 예술인들이 4000여건의 전시와 공연을 진행했고 318만 5000명 방문객이 다녀간 유럽의 대표 축제다.

특히 보스니아 전쟁 중에도 예술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왔으며 30주년이었던 지난 2013년에는 한국과 그리스가 주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평화연극제에 참가했던 프랑스 발콩극장의 세르쥬 바르 뷔시아의 권유로 추진됐다. 세계적인 배우이자 연출가로 프리모 레비의 작품을 바탕으로 ‘목이 마르다’를 광주에서 공연했던 그는 “광주평화연극제와 지향점이 유사한 세계적인 사라예보 겨울 축제와 교류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사라예보 겨울축제 조직위원회와 접촉 후 공식 초청을 받은 협회측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광주평화연극제와 사라예보 겨울축제 간 작품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제13회 평화연극제에 작품을 초청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작품 공동 제작,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중국 북경 공연 팀과 네트워킹도 구상중이다. 북경대중양회극원과의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3월 안에 북경 현지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협회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훗카이도 문화재단과의 네트워킹을 탄탄히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광주와 삿포로에서 격년제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협회는 올해부터 단순한 작품 교류 공연을 넘어 연출가, 배우, 젊은 기획자 등 인적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삿포로를 방문했던 극단 ‘까치날’이 일본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해 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올해 평화연극제에서 공연할 삿포로 지역 극단이 한국 희곡을 무대에 올리고 다음날 한국 극단이 또 다른 버전으로 공연하는 등 다양한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평화를 주제로 축제를 여는 곳은 광주와 사라예보 페스티벌 등 몇곳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라예보 축제와의 교류가 평화연극제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순기 회장은 “올해는 협회가 진행해온 해외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탄탄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의 한자 ‘淨 맑을 정’ 한국고전번역원 선정

한국고전번역원은 2017년 올해의 한자로 ‘맑을 정(淨)’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전번역원이 직원 140여 명과 성균관대·충남대·이화여대 등 12개 대학

권역별 거점연구소 연구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올해의 한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맑을 정이 44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국고전번역원은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일소돼 투명하고 깨끗한 체제가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바꿀 혁(革)’이 42표, ‘백성 민(民)’이 40표를 받아 2위와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시대의 아픔은 시를 통해 남고

“광기의 고향을 뒤엎고 투명한 새판을 짜자”

유수경 시집 ‘절다’

현대의 많은 시들은 ‘언어놀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난해한 작품이 많다. 많은 독자들이 시로부터 발길을 돌리는 것은 그 같은 양상에 실망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발을 딛고 선 현실을 주시하며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작품을 형상화한 시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지난 2001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한 후 15년만에 시집을 발간한 유수경 시인이 그 주인공.

유 시인이 최근 펴낸 ‘절다’(문학들)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특유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강제 이주’, ‘다국적 신문사’, ‘당신들의 천국’, ‘아날로그 포장마차’, ‘전봇대의 말’ 등 결코 가볍지 않는 소재들은 시작 연문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이 가을엔 나무들이 먼저 판을 접고 한다. 지상 위 광기의 고향을 뒤엎고, 저린 발 아래 부엌도 온기 같은 회복의 시간을 갖잔다. 빈 손가락이 하늘 가리키며 굴절 없이 투명한 새판을 짜자고 한다.” 표제시 ‘절다’는 현존의 세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내일의 가능성을 희구한다. 일상성을 뛰어넘는 건강함과 활달함이 시면에 담겨 있는 것이다. 유 시인은 “시를 안 쓰고도 살 줄

알았다”면서 “서도 “어렸을 때부터 꿈 꾸 었던 시인을 포기 하고는 살아갈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호근 시인은 추천의 글에서 “동시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소외된 자들의 곁에서 함께 절망하는 시인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고 평한다. 한편 유 시인은 현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와 시학회’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혼미의 시대...말이 되지 못한 슬픈 목소리

박석준 시집 ‘거짓 시...’

광주 출신 박석준 시인이 두 번째 시집 ‘거짓 시, 소원도 세상에서’(문학들)을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작품은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와 ‘거짓된 세계’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된다. 문명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갈등, 너와 나의 갈등, 나와 나의 갈등에 촉수를 드리운다. 시속 화자는 내가 누구인지, 이 세계는 무엇인지 질문할 틈을 주지 않는 삶을 고독하고 우울한 시선으로 응시한다.

“코가 뾰족하다, 스마트폰, 컴퓨터

윈도우에서와는 다른 모델./ 키가 반쯤 없이 크다, 늘씬한 10대, 그렇지 날렵한 바벨탑/ 그거다 인간의 소리를 모른다. //(중략)나는 말이 없었다. 하루, 즐거운 햇빛을 바라며/ 아르마운 새벽을 바라며 일터로 가는 버스를 탔다...”

‘소원도 세상에서’는 시인의 시적 지향과 주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소원도 거리를 걸으며 창을 바라보는 시인은 이내 할 말을 잊는다. 화자의 말은 모두 말더듬이의 시처럼 곳곳에서 중단되고 미로를 잃어버린다. 이처럼 ‘소원도’는 소통 불가능 아니라 현혹의 이미지도 또한 담고 있다.

박 시인은 지금을 “혼 미 한, 불 확 실 한 시대”로 인식하며 “생각은 일어나지만 생각대로 말이 되지 못한 목소리는 슬프다”고 말한다.

한편 박 시인은 전남대 국문과와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8년 계간 ‘문학마당’ 신인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가페, 가난한 비’와 자서전 ‘내 시절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승승 뿔린 구멍집에 갇든 우리들 일상과 삶

조성국 동시집 ‘구멍집’

바닷가 갯벌의 구멍은 자세히 보면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각각각색인 구멍 집들은 그림에도 높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성국 시인이 첫 동시집 ‘구멍 집’(문학동네)을 펴냈다.

시인은 다양한 구멍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작은 생명들을 노래한다. 모두 40여 편이 수록된 시집에는 ‘구멍 집’ 외에도 ‘소나무’, ‘흰둥이’, ‘강’, ‘열을 두렁’, ‘봄 손님’, ‘두릅나무’ 등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물과 동식물, 일상의 정경 등이 정겨운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승승 뿔린 구멍이 집입니다/ 갯벌에 가면 집이 구멍입니다/ 길쭉한 갯지렁이 구멍 옆에 바지락 구멍/ 그 옆에 꼬막 구멍 그 옆에 농게 칠게 구멍/ 그 옆에 비둘이그둥 구멍 그 옆에 쟁쟁이 구멍...” (‘구멍 집’ 중에서)

표제시 ‘구멍 집’에서 시인은 바다의 공간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동시에 땅과 하늘로 영역을 확장한다. 그 안에는 영글고 사위어 가는 우리들 일상과 삶도 고스란히 깃들여 있다. 일테면 환둥이와 아이가 먼 일갯집에 심부름 가는 풍경, 상수리나무가 지난 날 만났던 다람쥐 어깨를 치며 반가워하는 장면, 큰 논 엮혀 팽팽해진 겨울 대밭의 모습 등이 그렇다.

동시마다 배중열 화가의 개성적인 삽화도 삽입돼 있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강렬하고 조화로운 색조가 각 편의 시들과 조화를 이룬다.

한편 광주 출신 조 시인은 1990년 ‘창작과비평’ 봄호에 ‘장대비’ 외 6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5년 ‘문학동네’ 여름호에 동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시집 ‘슬그머니’, ‘둥근 진동’ 등을 발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온1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

500m

메디컬센터
순창터미널 맞은편

분양 및 임대

1층

2층

3층

악곡, 제과점, 편의점 기타

내과, 검진센터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5층

6층

치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